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2월 19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5장 14-19절

설교제목 :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쉐’입니다. ‘아쉐’는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란 뜻입니다. 즉 보상과 배상이란 뜻입니다. 속건제의 핵심개념은 보상, 배상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속건제는 의무제로써 반드시 어떤 과실이나 죄 때문에 생긴 손해를 처리해주고 반드시 보상해야 제사입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물 부지중에 범했을 경우입니다.(레5:15) 한글성경은 ‘성물’이라 번역했지만 복수로 성물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들이나, 여호와께 바쳐친 것들입니다. 가령 제물, 십분 일로 드리는 것, 곡식의 첫 소산,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여호와께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이 성물에 속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을 경우입니다.(레5:17)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입니다. 교회의 예산 계획이나 집행과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원 하나 소홀하면 안됩니다. 더불어, 레위기는 분명 십의 일은 여호와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합니다.(레27:30) 요즘에는 십의 일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격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십일조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었습니까?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다릅니까? 만일 폐지된 제사라면 왜 공부합니까?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합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51:16-17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 고백합니다. ‘상한’, ‘상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쇄바르’입니다. 이것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 조각나다’입니다. 이 단어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레위기 제사에 등장합니다. 레1:12에 보면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입니다. ‘쇄바르’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분리시키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쇄바르’는 제물을 각을 떼서 산산조각 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심령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물의 제사 형식을 뛰어넘는 제사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사는 폐지된 것 아닙니다. 형식이 시대마다 바뀔뿐입니다. 핵심은 본질의 온전한 구현입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십일조의 형식은 신약을 사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십일조의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십의 일조는 주재권의 고백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십일조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본질입니다. 십일조가 가진 의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십일조의 의미를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

호와의 계명도, 그 본질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본질적 의미를 잘 구현해 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는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남이 맡겨놓은 것 즉 전당물을 속이는 착취하는 경우 (6:2),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경우(6:2), 착취 즉 강도짓을 했을 경우(6:2), 남의 물건을 주워가지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6:3)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은 원금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알파가 있습니다. 피해의 20%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레5:15-16) 이 원리는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레6:4-5)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도, 보상은 원금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20%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고 속건제사가 드려집니다. 예수님도 이 속건제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5:23-24). 이웃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이란 영화에서 살인범은 먼저 신애(전도연)가 입은 감정과 손실을 온전히 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며, 철저히 정신적, 심적인 배상을 하려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속건제의 두 번째 특징은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숫양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속건제로 드리는 숫양은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합니다.(레5:15, 레6:6)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속건제물을 정하셨습니다.(사53:10)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롬3:24) 속죄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속량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의 값으로 자신이 독생자를 지불하셨습니다. 속량의 값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구현함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인지 설명해 봅시다.(레5:15 / 레5:17 / 레6:2-4)
- 2) 속건제사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 5:15-16, 레6:4-5 / 레5:15, 레6:6)
- 3)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롬3:24)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간증이 있다면 어떻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